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6호 2009(723~744)

상품 · 교통 · 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와 과제*

韓柱成**

Prospects and Problems in the Study of Geography related to the Concept of Commodity, Transport, and Supply Chains*

Ju-Seong Han**

요약 : 본 연구는 상품 · 교통 · 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와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사슬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는 핵심과 주변에서의 농산물과 식료의 지리적 패턴에 주목하고, 이들의 수직적인 연결을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상품사슬을 주도하는 주체와 경제격차에 초점을 두고 각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품회로나 상품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는 문화적 측면이나 미시적 지역의 주체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론적 전환과 국지의 중요성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양식에 의한 일련의 수송과정을 교통사슬로, 해상화물의 물적 유통과정을 해운의 공급사슬로 파악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주요어 : 상품사슬, 농업식료 상품사슬, 상품회로, 상품 네트워크, 가치사슬, 교통사슬, 공급사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rospects and problems in the study of geography related to the concept of commodity, transport, and supply chains. The geography studies related to commodity chains are expanded to each field of industry focusing on the subjects and economic difference which lead the commodity chain in core and periphery regions. These vertical connection are studied with the political economy approach that gives attention to geographical patter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 But in viewpoint of commodity circuit and commodity network, the culture or subjects of micro regions and interaction are also studied. The contents of these study are to clarify the importance of cultural turn and local. And the study of chain standpoint appears that the series of transport process by transportation modes can be understood by transport chains and the physical distribution process of sea freight is to be grasped by supply chains.

Key Words : commodity chain, agri-food commodity chains, commodity circuit, commodity network, value chain, transport chain, supply chain

1. 서론

최근 글로벌 경제와 그 생산체계(production system)는 고도로 통합되고 상호의존적이어서 사슬(chains)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뛰어 넘어 주체들 간에 연속적이고, 또 상호 연관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현상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

* 이 논문은 2009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9).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 chungbuk.ac.kr

슬개념이다. 사슬개념을 활용한 공간분석의 시초는 1970년대 프랑스 학계에서 제3세계 국가의 농산물 유통과정을 조직적으로 분석했던 수순(手順, filières)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Raikes *et al.*, 2000). 그 후 사슬은 Porter(1985)의 가치사슬(value chain)의 발표로 관심이 높아졌고, Hopkins와 Wallerstein(1986)에 의한 상품사슬(commodity chains) 연구가 Wallerstein (1979)의 세계 시스템론[1] 개념에서 창안되어 Gereffi와 Korzeniewicz(1994) 등에 의해 널리 수용되어 발전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등의 사이에서 상품을 주요어로 글로벌화를 언급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1980년대 말 생산체계의 재조직과 영역발전(territorial development) 과정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지리학분야에서는 2000년 전후로 Leslie and Reimer(1999)의 연구가 효시이고, 지리학의 논점으로 요령이 있게 정리한 것이 Smith *et al.*(2002)의 연구이다. 또 Hughes and Reimer(2004)의 편서는 다양한 연구동향과 최신의 성과를 망라하여 지리학에서 글로벌 상품사슬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Bair(2009)는 상품사슬 연구의 개척자들에 대해 논했다. 이와 같은 상품사슬 연구는 세계 시스템론에 개념적 뿌리를 두고 세계경제에 있어서 소매활동 및 소비를 주로 하는 핵심지역과 상품을 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주변지역 사이에 경제격차를 발생시키는 매체를 밝히는 것으로 발달하였는데, 오늘날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경제격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게 되었다.

종래 상품사슬에 관한 연구에서 荒木(2007)는 상품회로(commodity circuit), 상품 네트워크(commodity network), 가치사슬 및 상품사슬과 관련이 있는 식료시스템론(food system), 수순, 식료체제론(food regime), 식료 네트워크론(food network)을 포함하여 그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네트워크의 관점을 포함한 것이고(Thrift and Olds, 1996), 또 농업의 산업화와 글로벌 농산물 및 식료거래를 상품사슬 연구의 틀 속에 현실적으로 확대하여 관련지운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는 생산과 자본의 집중, 수직적 통합의 강화가 포함되어 식료 시스템의 공간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Bair(2005)는 상품사슬의 연구를 상품사슬, 글로벌 상품사슬, 글로벌 가치사슬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래 다양하게 연구되어진 상품사슬연구 틀에 여객과 화물이 여러 가지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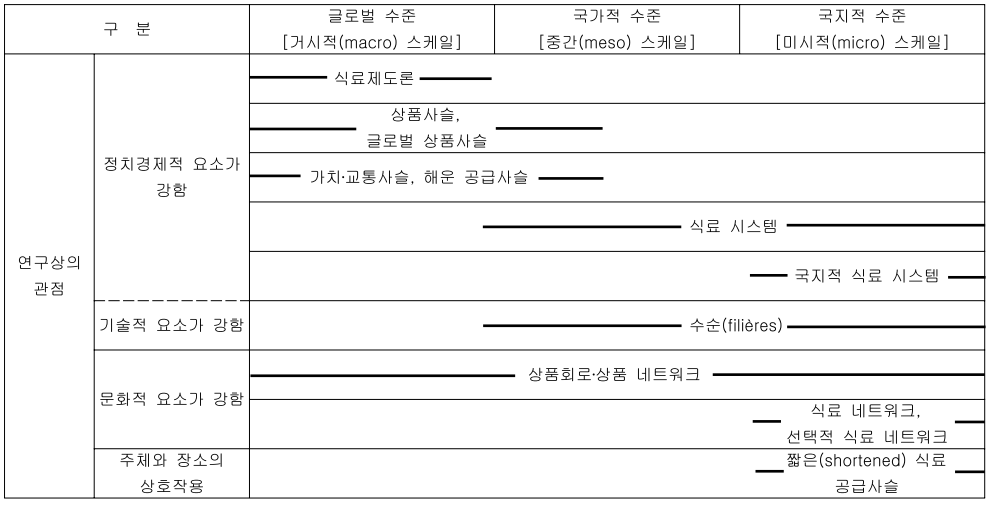

그림 1. 상품 · 교통 · 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주제의 위치

출처: 荒木(2007, 152)를 수정 · 보완했음.

통양식에 의해 수송되는 일련의 현상인 교통사슬과 해운업 서비스의 공급사슬(supply chains)도 포함시켜 사슬에 대한 연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의 상품 · 교통 · 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연구와 그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상품사슬과 글로벌 상품사슬의 정의와 접근방법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상품사슬과 관련된 상품회로, 상품 네트워크, 가치사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4장에서는 농산물과 식료[2]의 상품사슬 응용연구로 수순, 식료체제론, 식료시스템, 식료 네트워크에 대해 고찰하고, 5장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교통사슬(transport chain)과 해운의 공급사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이들을 정리하여 상품 · 교통 · 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 연구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상품 · 교통 · 공급사슬과 관련된 각종 문헌들이다. 사슬개념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의 위치는 정치경제적 요소, 문화적 요소 등과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荒木, 2007, 152). 이러한 분류는 상품 · 교통 · 공급사슬과 관련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종래의 상품사슬 주제에 기술적 요소 및 주제와 장소의 상호작용을 덧붙여 보다 미시적인 새로운 사슬주제를 부가하여 다양한 연구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슬개념 관련 주제를 재구성한 것이 그림 1이다.

2. 상품사슬과 글로벌 상품사슬

1) 상품사슬의 정의와 특징 및 접근방법

상품사슬은 생산체계 내 일련의 과정으로 자원을 수집하는 생산체계, 부품이나 생산물을 변형시키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시장으로 유통시키는 순차적 과정을 말한다. Hopkins and Wallerstein(1986, 159)은 '최종 상품생산에 수반되는 노동과 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로, 이것의 최종적인 성과는 완성된 상품'으로 노동 네트워크와 완제품의 생산과정이라고 했다. 일련의 연속된 과정은 독특하고, 제품수명주기의 현재 단계뿐만 아니라 생산유형의 의존, 생산체계의 본질, 시장의 요구에 의존한다. 또 상품사슬은 원료의 변형에서 중간 제조단계를 거쳐 시장에 이르는 공급사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생산, 무역, 서비스 활동이 기능적으로 통합된 네트워크이다(Rodrigue *et al.*, 2006, 256). 그리고 상품사슬은 주로 생산자와 구매 주도자 관점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사이에 투입과 산출이 이루어지는 연속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상품사슬은 변화하는 조건, 즉 가격과 수요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생산의 조정을 변화시키는 적응력을 제공하며, 생산과 유통의 융통성은 감산, 거래, 합리적인 결과로서 유통비용과 함께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상품사슬은 어떤 상품이나 제품, 그것과 관련된 가구나 기업, 또는 국가가 세계경제 시스템 속에서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것(Gereffi and Korzeniewicz, 1994)을 말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품사슬은 원재료나 반제품 등의 조달과 관련되고 노동력 및 그 공급과 관련된 것, 수송과 관련된 것, 시장이나 유통, 분배와 관련된 것과 최종소비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된다. 이때에 열쇠가 되는 것은 상품이고 세계경제에 있어서 주변지역에서의 생산과 핵심지역에서의 소매 · 소비를 연결하는 상품의 사슬에 주목한 접근방법이다. 여기에서 상품이란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의 경제격차가 나타나는 매체이다(荒木, 2007, 153).

그림 2는 기본적인 상품사슬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투입에서 소비자까지의 원료와 생산품의 유동과 정보의 유동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상품사슬에 기술 및 연구 · 개발과 더불어 로지스틱스[3]를 가미해 나타낸 것이다. (다)는 여기에 덧붙여 재정적 지원과 규제완화, 조정, 통제 등이 작용할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2008년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제8권 제3호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론의 특집호인데, 권두 논문에 글로벌 산업편성 및 기업이나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가 글로벌 상품사슬[4]연구이다. 이것은 특정의 글로벌 상품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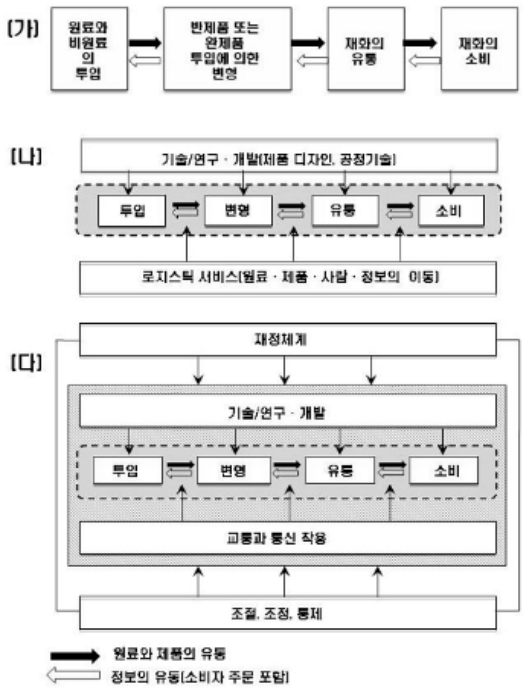

그림 2. 기본적인 상품사슬

출처: Coe *et al.*(2007, 95)

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글로벌적 경제편성을 해명하려는 연구이다. 둘째는 글로벌 가치사슬연구로, 이것은 각종 글로벌 산업의 거버넌스[5] 존재를 비교 · 연구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가 글로벌화 생산 네트워크[6]의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글로벌 상품사슬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구 및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이나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성과를 접목하려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연구의 흐름은 사슬 또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고찰한 것으로 글로벌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역동성에 관심을 둔 것이 공통점이다(Coe *et al.*, 2008).

글로벌 상품사슬에 관한 연구는 1979년 미국 Binghampton대학의 Fernand Braudel 경제 · 역사체계와 문명 센터의 연구그룹이 세계경제의 주기 리듬과 장기동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mith *et al.*, 2002, 43). 이들은 상대적 구조주의자로 세계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 글로벌 상품사슬은 세계경제의 1차적 조직양상 중의 하나이다(Coe *et al.*, 2007, 97). 국제경제와 산업조직의 초점으로서 글로벌 상품사슬 틀은 노동분업의 재형상, 경제 · 산업조직, 그리고 유럽과 또 다른 거시 지역경제의 경제적 실행으로 잠재적 통찰을 제공했다(Smith *et al.*, 2002, 43). 이러한 글로벌 상품사슬은 상품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사슬이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 왔는지를 묘사한 것으로, 세계경제의 공간적 불균형을 검토 자료로 사용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Talbot, 2002). 경제활동의 사슬개념화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Gereffi and Korzeniewicz(1994, 2)는 글로벌 상품사슬을 가계, 기업, 국가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세계경제 내에서 특정상품을 둘러싸고 군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련의 조직간 네트워크라고 정의했다. 예를 들면 핵심지역에서 기업이나 국가는 세계경제에서 주변에 경쟁압력을 전가함으로 혁신을 통해 경쟁의 우위성을 확보한다. 그러므로 경쟁압력은 수출지향의 성장, 업무경감, 구조조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단기간의 경제성장 프로그램에 의한 저임금 노동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상품사슬은 상품사슬을 바탕으로 한 종속이론의 분석전통을 따른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리학 분야에서 폭 넓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글로벌 상품사슬의 개념적 뿌리도 Wallerstein의 세계 시스템론에 논거한 것이다[7]. Leslie와 Reimer(1999)는 글로벌 상품사슬의 접근방법인 선형사슬이 상품을 소매로 판매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주변지역에서 어떻게 생산되어 핵심지역에서 소비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묘사 · 설명했다(Huges, 2000, 176). 그리고 Smith *et al.*(2002, 43)은 글로벌 상품사슬의 접근방법을 다른 결절(nodes)내 상대적 경쟁강도의 결과로서 사슬내의 부의 분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Gereffi and Korzeniewicz(1994)가 큰 기반을 구축한 글로벌 상품사슬의 기본적 특징은 개발도상국이 많이 분포된 남반구의 주변지역에서 선진국이 많이 분포된 북반구의 핵심지역으로 거래 · 소비되는 생산과 공급의 틀이다. 또 상품사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통제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글로벌 상품사슬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리고 글로벌 상품사슬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Gereffi, 1994, 97). 첫째, 다양한 생산, 유통, 소비의 결절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제활

동의 사슬로 연결되는 투입-산출구조를 갖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상품사슬 내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 결절, 그리고 유동이 지리적으로 위치지어진다는 점에서 글로벌 상품사슬은 영역성[8]을 갖는다. 셋째, 글로벌 상품사슬은 재정, 원료, 인적자원 등이 사슬 상에 배열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권위와 권력의 관계인 거버넌스의 구조를 갖는다.

글로벌 상품사슬을 지지하는 효과적인 유통체계의 등장은 기능적 · 지리적 통합에 의해 유지된다. 그 기능적 통합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결합력을 갖는 체계에서 공급사슬의 요소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능적 상보적(相補的) 상태는 일련의 공급과 수요관계, 화물 · 자본 · 정보를 포함하는 유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능적 통합은 현시점 즉시 판매방식(just-in-time), 택배전략(door-to-door)이 새로운 화물관리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의존의 예로서 관련된 넓은 관할지역에서의 유통에 의존한다. 그리고 화물의 복합수송활동은 로지스틱스의 활동이 더 효과적인 적환점과 그들 간의 회랑을 많이 이용하여 만드는 경향이 있다.

Gereffi and Korzeniewicz(1994)는 국제경제와 산업조직의 초점으로서 글로벌 상품사슬 접근방법의 주요 주제를 첫째, 세계 시스템에 있어서 상품사슬의 역사 · 공간적 패턴, 둘째 상품사슬의 조직화, 셋째 상품사슬의 지리, 넷째 소비와 상품사슬의 4가지로 나누었다. 또 Hughes and Reimer(2004)는 상품사슬과 글로벌 상품사슬의 접근방법을 생산자 · 구매자 주도의 상품사슬, 상품사슬의 영역성, 윤리적 상품사슬과 소비의 정치학으로 나누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상품사슬 내용만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Hughes and Reimer(2004)의 내용구성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생산자 · 구매자 주도의 상품사슬

글로벌 상품사슬 분석은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생산에서 소비의 각 단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사회적 관계성으로 밝히려는 것이다. 글로벌 상품사슬이 가지는 구체적인 관점으로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상품사슬의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상품사슬을 움직이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생산자(공급자) 주도사슬과 소비자 주도사슬로 나누어진다(그림 3).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은 Gereffi (1994; 1999)가 의류산업의 국제적 전개를 검토하여 제시한 것인데, 생산자 주도 사슬은 보통 생산체계를 통제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대규모 초국적 기업의 산업에서 나타난다. 자본 · 기술 집약적 산업인 항공기,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기계공업은 이에 속하는데, 이들은 고도의 생산체계나 기술, 고임금의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한편 구매자 주도 사슬은 수출지향의 개발도상국에 입지하며, 월마트나 까르프 등과 같은 대규모 소매점과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브랜드 제품 판매상이 생산체계 설립과 조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구매자 주도 사슬은 의류, 신발, 인형 등의 노동집약적 소비재 부문이 일반적이다(Coe *et al*., 2007, 101-104). 이들 업종은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비숙련 노동자도 생산이 가능하며 외부화가 용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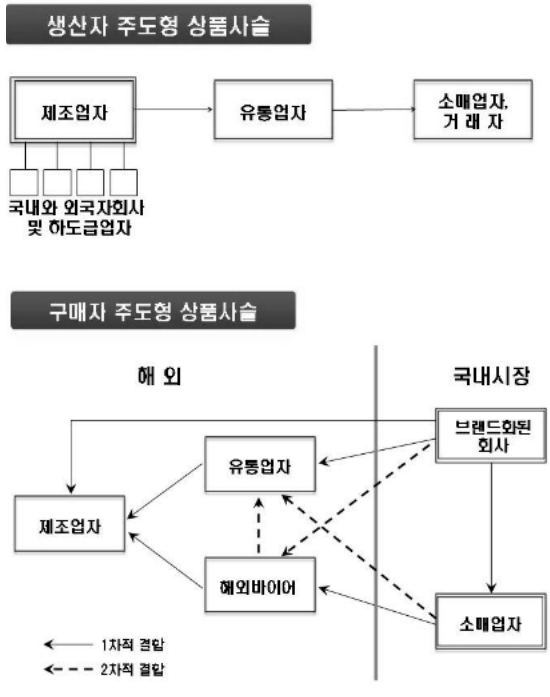

그림 3. 생산자 주도형 상품사슬과 구매자 주도형 상품사슬

출처: Murray(2006, 122)

표 1. 생산자 주도와 구매자 주도 상품사슬의 특징

구 분	경제적 거버넌스의 형태	
	생산자 주도	구매자 주도
자본의 통제 유형	공업	상업
자본과 기술 집약도	높음	낮음
노동특성	숙련, 고임금	미숙련, 저임금
기업통제	제조업자	소매업자
생산 통합	수직적, 관료적	수평적, 네트워크적
통제	내면적, 계층적	외면적, 시장
계약, 외부수주	적당하고 증가	높음
공급자 제공	중간재	완성품
사례	자동차, 컴퓨터, 항공기, 전기기구	의류, 신발, 인형, 소비재 전자제품

출처: Coe *et al.*(2007, 102)

이와 같은 생산자 주도 상품사슬과 구매자 주도 상품사슬의 기본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우리나라에서 상품사슬이나 글로벌 상품사슬에 관한 경제지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張美花 · 韓柱成의 연구(2009)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회학 분야에서 신발산업에 대한 연구(신원철, 2007), 정치학 분야에서 나이키 신발에 관한 연구(임석준, 2005)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구매자 주도 상품사슬의 연구이다. 그러나 생산자 주도형 상품사슬로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Lee and Cason(1996)의 연구와 Kim and Lee(1996)의 연구가 있다.

3) 상품사슬의 영역성

투입과 산출구조라고 종종 알려진 특별한 상품사슬에 포함되는 행위자의 배열과 범위는 상품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생산과정을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상품사슬에서와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그들의 지리, 즉 영역성, 대등하고 통제된 방법, 즉 거버넌스, 사슬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어 내는 국지적 · 국가적 · 국제적 조건과 정책, 즉 제도적 틀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Coe *et al.*, 2007, 97). 영역성은 행위자들이 글로벌 경제를 공간적으로 동시에 가로질러 결합해 그것을 정확하게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가치의 지리적 불균등, 여러 가지 사슬에 따라 연합된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영역성의 상품사슬에 관한 다섯 가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 · 통신과 기술공정의 발달정도에 힘입어 일반적으로 글로벌 상품사슬의 지리적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 복잡성은 PC의 주요 요소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세계적 생산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상품사슬의 지리적 형상은 더 동적이고 급속한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공간수렴기술의 이용과 생산량의 빠른 공간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로부터 유래된다. 셋째, 상품사슬 지리학의 이해는 특별한 장소나 국가에서 각 단계가 입지하는 것과 같이 단순하지 않다. 글로벌 상품사슬은 또한 장소 간 경쟁의 역동성을 나타낸다. 입지의 다양성에서 기업은 사슬의 차이로 시장분할에 대한 경쟁을 할 것이다. 넷째, 글로벌 상품사슬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식별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활동의 지리적 클러스터링에 관한 논의로서 글로벌 상품사슬의 지리적 광범위성과 복잡성에 관한 이들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Coe *et al.*, 2007, 97-100).

『상품사슬과 글로벌 자본주의(*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중에서 「상품사슬의 지리학(The geography of commodity chains)」은 상품사슬의 지리학적 패턴을 취급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논문은 의류와 자동차 등 공산품의 상품사슬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Gereffi and Korzeniewicz, 1994, 187-296). 이들 연구의 배경에는 각 부문의 원료나 부품의 조달로부터 가공, 조립, 판매가 글로벌 스케일에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식료에서는 그 조달의 구조가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리적 패턴은 공산물의 상품사슬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荒木, 2007, 154).

Barrett and Browne(1996)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수송된 신선채소 무역을 검토했는데, 농산물 품목의 다양성, 생산량의 경년변화가 큰 점, 가공식품 등에

착안해 고찰한 결과 농산물 · 식료의 상품사슬의 지리적 패턴이나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격차의 해명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4) 윤리적 상품사슬과 소비의 정치학

Hughes and Reimer(2004)는 글로벌 상품사슬이 국경을 넘는 분석적 수준에서 생산과 소비의 대응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사상(事象)과 문화적 사상(또는 정치적 사상)의 대응, 구체적인 측면과 상징적 측면에서의 대응을 옹호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와 문화의 대응은 글로벌이라는 상품사슬의 스케일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래서 경제적, 문화적 두 측면을 동시에 검토하고 지리적 고찰을 사례연구로 제시했다.

또 Hughes and Reimer(2004) 및 Hughes(2006)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개재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기준을 만족하는 무역(ethnical trade)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윤리적 상품사슬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이 책에서 지적하는 이미지와 지식이 오늘날 상품사슬을 생각할 때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대해 농업식료사슬의 새로운 지리학으로 영국의 품질보증계획을 분석한 Morris and Young(2004)의 연구와 패션 상품사슬의 해체를 분석한 Crewe(2004)의 연구, 윤리적 무역을 위한 회계로서 글로벌 상품 네트워크, 사실주의와 회계감사를 분석한 Hughes(2004)의 연구, 소비의 정치에서 유기농산물과 그 밖의 예외를 분석한 Hughes(2001), Guthman(2004)의 연구, 가재(家財)도구의 상품사슬에서 지식, 윤리, 권력에 관한 Reimer and Leslie(2004)의 연구는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상품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상품의 생산과정, 가공과정 및 유통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또 소비에 대해 생산자가 가진 지식, 본인 스스로 만든 상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소비되는지, 이를테면 어떻게 상품화되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 상품이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소비는 상품사슬의 최종단계로 선진국의 소비와 그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미국 운동화산업이 1960~1970년대에는 국산품을 수입품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치의 창출이 사슬을 움직였는데 대해 1970~1980년대에는 미국 내 마케팅 부문, 1980년 이후에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신발의 디자인 부문과 광고부문이 사슬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Korzeniewicz, 1994). 이밖에도 상품 물신주의[9]나 자본의 물신숭배라는 의미도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Goldfrank(1994), Collins(2000), Stanford(2000), Polier(2000), Raynolds(199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겨울에도 여름채소를 먹고 싶어 하는 마음, 어디에 가든지 열대의 과일을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 욕구, 또는 그러한 소비를 사회적 지위와 관련지어 느끼는 소비자의 의식 등 선진국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상품사슬 형성의 원동력으로서 그려내고 있다. 나아가 선진국의 소비에 있어서 가치의 문화적 · 정치적인 문맥이나 배경에 대해 언급한 연구도 있다(Mather and Rowcroft, 2004). 이국적인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흥미는 그것을 생산한 국가의 곤란한 측면을 덮어버리거나 정보나 이미지, 지식은 예를 들어 그것이 틀린다고 해도 상품사슬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코카인의 상품사슬의 연구(Wilson and Zambrano, 1994) 등도 이러한 선진국의 소비와 개발도상국 생산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3. 상품회로와 상품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의 연구

1) 상품회로

상품사슬에 비해 보다 문화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 상품회로 연구(Jackson and Taylor, 1996; Jackson, 1999; 2002)로,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문화회로 접근방법이다. 문화회로 접근방법의 특징은 첫째, 생산, 유통, 소비의 각 현상을 통해 상품의 움직임을 선형사슬

이 아닌 비선형의 회로(Leslie and Reimer, 1999), 즉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10], 둘째 사슬의 기점과 종점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생산, 유통, 소비 사이에서 역학으로 작용하는 문화적인 요인에 직접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상품문화보다 광범위한 문맥에서 파악되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시 · 공간, 이를테면 상품회로가 어떤 국면인가에 따라 다르므로 사물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는가에 이해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물질적 문화나 비판적 민족지 등의 연구를 추진한 경제인류학자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荒木, 2007, 156). 상품사슬의 접근방법이 생산부문에 있어서 경제활동과정을 모두 들어나게 하는데 대해, 이 접근방법은 사물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일 때에의 복잡함 또는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적, 지리적 지식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접근방법은 생산현장에서 현실성이나 그 현실성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의 해명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상품회로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면의 검토를 통해 상품에 부여된 의미의 기술(記述)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산자와 소비자, 광고 사이에서 어떻게 의미가 바뀌고, 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Hughes and Reimer, 2004).

한편 이러한 회로에 착안한 분석에 대해 Leslie and Reimer(1999)는 '사실상 끝없는 소비의 회로'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회로를 확실히 연결해 가면 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꾸면 글로벌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취한다는 중요한 정치적 입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을 말한다. 그녀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상품사슬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힘이 사슬을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없다면 '왜 사슬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그래서 사슬이란 개념을 완전히 내버리지를 못하면 과도한 회로개념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Jackson(1999; 2002)은 복잡함을 묘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상품 네트워크에 있어서 긴장과 염려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사슬의 개념보다는 회로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연구대상은 넓이보다는 광범위한 틀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련 대상을 끝없이 넓게 펼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접근방법이 등장한 배경의 문제의식, 즉 글로벌화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부분으로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 개념의 유효성이나 그 가능성에 대해 이념적인 논의에 시종 매달리기 보다는 바탕이 되는 문제의식에 대한 유효한 접근방법이 존재하는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荒木, 2007, 156-157).

2) 상품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사회과학 전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복잡하지만 다른 유형의 사람(또는 기업, 국가, 조직 등)간의 관계를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Hughes and Reimer, 2004). 시스템이 하나의 방향성이나 지향성을 갖는데 대해 네트워크는 다방향성이나 무지향성의 문맥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종래 상품사슬이 단선적인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것보다는 연결고리에서 보다 자유로운 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즉, 어떤 상품의 순환 형태를 만드는 한 무리의 행위자(actor, 결절)가 존재한다고 하면 행위자간의 연결은 고정적 · 수직적 · 단일 방향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복잡한 상호의존의 그물' 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荒木, 2007, 157). 이 그물망은 이를테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한 방향의 상품교환을 전개한 기업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복선적으로 여러 방향의 정보흐름 등과도 연결해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상품 그 자체의 순환이 다른 것보다도 우대된다는 종래의 글로벌 상품사슬에 대한 비판이 이념적으로는 회피되고, 디자인이나 연구개발, 상품의 평가나 판매에 영향을 미친 NGO, 소비자 단체 등도 상품 네트워크에 넣어 생각할 수 있다(Hughes, 2000). 또 이러한 네트워크를 생각하는 배경에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11]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상품 네트워크는 평지씨(rapeseed) 생산의 연구를 한 L. Busch와 A. Juska가 상품 네트워크의 개념을 특히 발전시키기 위해 행위자 네트워크론을 받아들였다(Hughes and Reimer, 2004, 5).

또 Hughes 등은 Guardian지(誌)의 기사를 들어 정보의 결손(information deficits)도 네트워크에서 행위자 분석을 수용할 수 있는 의의의 하나라고 했다. Guardian지의 기사란 영국제 구두가 인도의 Chennai에서 가공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영국에서의 판매가격이 인도에서 구두를 가공한 여성노동자 한 달 임금의 3배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사실 그 자체에 대해 비판적 · 정치적 전언보다도 그것에 숨겨진 상품 물신주의(Castree, 2001)를 폭로한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그것은 상품 물신주의가 공간적인 스케일이나 지리적인 문제와 현실적 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강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荒木, 2007, 157).

이러한 측면은 지금 막 시작한 지리학적 과제이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인도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묘사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 또는 정치적 전언을 발생시키거나 한발 앞서 공정무역(fair trade)[12] 등의 활동에 편승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비판적(정치적) 전언이나 공정무역 등의 활동자체에 숨겨진 상품에 대한 물신주의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면 보다 단순화하면 실제로 어떠한 무역이 행해질까, 그것이 어떻게 생산자에게 환원되는가는 모를지라도 공정무역이란 라벨을 붙인 상품을 소비한 것에 대한 가치를 보기 시작한 소비자의 자세, 실태보다도 라벨에 가치를 구하려는 자세 그 자체를 검토하려는 것이다(荒木, 2007, 157).

3) 가치사슬

사슬개념을 공간분석에 적용한 연구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은 1985년 M. Porter가 가치사슬의 개념을 정립했던 때와 대체로 일치한다. 가치란 상품을 구입하는 회사가 재화를 제공받음으로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Porter는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사슬의 단계별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가치사슬이라 했다. 가치사슬은 개념화로부터 생산의 중간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어 사용된 후 재활용되기까지의 제품과 서비스를 발생시키는데 요구되는 모든 활동의 범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개념에서 가치사슬은 생산 그 자체가 다수의 부가가치로 연결되는 것 중의 하나라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가치사슬이란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서 부가가치의 창출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 기능 · 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한다(加藤, 2000, 242-244). 예를 들면 기업의 가치사슬은 상류부문에는 원료 공급업자의 가치사슬이, 하류부문에는 유통경로의 가치사슬이, 나아가 소비자 부문의 가치사슬과 연결된다. Porter는 또 이러한 가치사슬 전체를 가치 시스템이라고 했다(荒木, 2007, 158). 이러한 가치사슬은 경쟁우위를 규정 · 분석하는 도구로 제안되었는데, 상품의 국제무역에서는 생산지로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각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사슬을 논할 수가 있다. 가치사슬은 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의 정도가 상이하고 또 이들이 사슬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관점에 우위를 둔 상품사슬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혁신 클러스터를 가치사슬로 엮은 혁신주체들의 군집이라 볼 때(Sturgeon *et al*., 2008), 위계적 측면에서의 가치사슬은 수직적 가치사슬과 수평적 가치사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직적 가치사슬이란 기술의 흐름에 따른 관련 주체들의 연계관계를 일컫는 것으로, 기술창출-기술이전-기술활용으로 이어지는 기술흐름, 즉 선형적 관계이든 순환적 관계이든 관련된 주체들 간에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를 말한다. 한편, 수평적 가치사슬은 기술창출 시스템이나 기술활용 시스템, 즉 각 시스템 내 주체들 간의 가치연계 관계를 일컬으며 경쟁적 가치사슬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주로 산학연 각 부문 내 유사기능 주체들 간의 관계로서 대학 간 또는 대학과 연구소간의 경쟁, 그리고 산업 내 같은 업종과 기업 간 경쟁 등을 수평적 가치사슬이라 부를 수 있다(김선근 · 정지복, 2005, 11).

또 글로벌 가치사슬은 영국 Sussex의 개발연구원(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in Sussex)의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Coe *et al*., 2008, 267).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중국 환경정책의 전자폐기물에 관한 연구(Xin, 2005)가 있으며, Gereffi *et al*.(2005)은 기업 간 연계의 본질과 내용, 또 구매자와 아주 적은 공급자 계층 간에 주로 가치사슬 조정을 조절하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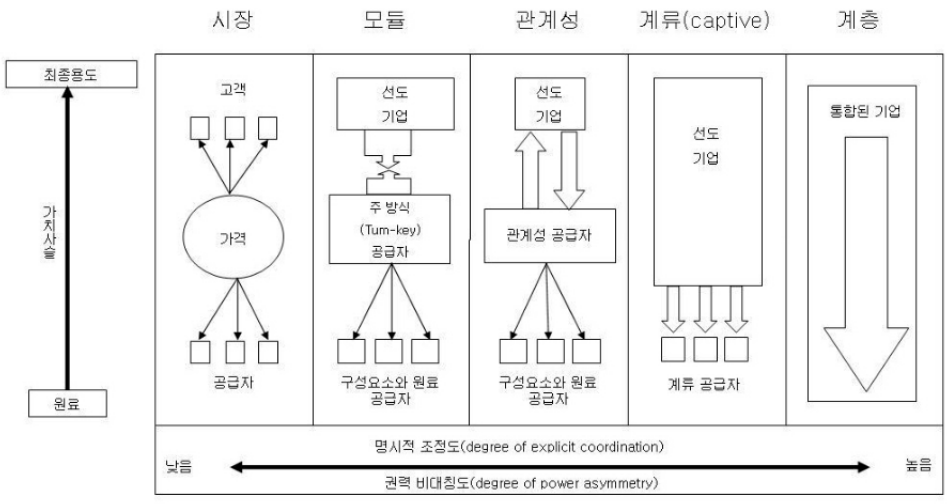

그림 4. 글로벌 가치사슬의 거버넌스 유형

출처: Gereffi *et al.*(2005, 89)

배력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절되고 변화하는 것은 거래의 복잡성, 분류된 거래에 대한 능력, 공급을 바탕으로 한 가능성이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은 거버넌스 유형을 명시적 조정과 권력의 비대칭의 이중적 연속체로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의 범위에서 계층, 계류(captive), 관계성, 모듈, 그리고 시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 4).

여기에서 가는 선의 화살표는 가격을 바탕으로 한 교환을, 굵은 화살표는 명시적 조정을 통해 조절된 정보와 통제의 강한 유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계류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나 계층의 한계 내에서와 같이 더 지배적인 구매자(또는 관리자)로부터 권력이 약한 공급자(또는 종속자)로 온 교훈이나 관계성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와 같이 협력자의 행위를 조절하는 사회적 구속력도 포함한다. 모듈 글로벌 가치사슬의 경우 강한 정보유동은 기업 간 연계에서 자기 기업의 암묵적 정보를 관리하게끔 각 협력자를 떠나게 하여 사슬은 계류나 시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 거버넌스도 결합 · 분류하여 넘겨주도록 요약했다.

가치사슬 분석의 목적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활동과 잠재적인 고부가가치의 지속적인 창출요소를 발견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가치사슬 분석은 고부가가치 활동 및 저부가가치 활동의 규명을 통해 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구성요소의 고도화 방안까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최정수, 2006, 42). 가치사슬을 파악할 때에 주목해야 할 점은 사슬 중에서 해당부문의 역할이나 기능,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는 고도화란 개념이 중시되고, 이에 따라 동태적인 접근방법이 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그것은 정태적 · 고정적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의 상품사슬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로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섬유 · 의류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사례로 가치사슬을 밝힌 이승철(2007)의 연구가 있다. 그는 베트남의 한국 섬유 · 의류산업이 세계 섬유 · 의류산업에서 전형으로 나타나는 구매자 주도형 가치사슬 거버넌스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 대구시 문화콘텐츠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을 분석한 박경숙(2005)은 가치사슬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4개 기업군으로 나누고, 이들 기업군에 대한 경영특성을 밝혔다. 그리고 최정수(2006)의 문화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 또 창작, 제작, 재제작 및 유통, 소비 및 교환으로 구분되는 창조산업의 주체별 성장을 서울시를

사례로 분석한 이희연 · 황은정(2008)의 연구 등이 있다.

4. 농산물 · 식료의 상품사슬 연구

본 장에서는 농산물 및 식료와 관련된 상품사슬의 응용연구로 1990년 이후 구미를 중심으로 식료체제, 식료 네트워크론, 수순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의 새로운 논의에 대한 연구의 소개는 아주 최근에 시작되는데, Stringer and Le Heron(2008)의 농업 식료연구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1) 수순

수순은 프랑스어로 실(thread)을 의미하는데, 1960년대부터 프랑스 연구자가 자국의 농업분석에 이것을 이용한 것이 그 단초가 되었으며 글로벌 상품사슬보다 일관성이 적은 점이 있다. 수순은 특정상품의 유통지도를 작성하고 수순 참여주체들의 활동을 계층적인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통합(비통합)의 역동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료로부터 최종생산품까지의 가공, 제조의 물리적 변형, 수송, 저장 등을 통한 상품의 도정(道程)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순은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영향, 특히 상품사슬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것으로, 글로벌 상품사슬과 본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절대적 위치 관계의 형태에서도 다른 고도의 경제학적 개념화로 의미를 찾는 것이다(Hughes and Reimer, 2004, 2).

수순은 최종수요자의 만족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주체들의 집합으로,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농산물의 판매과정을 생산 및 분배 시스템 내부의 경제적 과정으로 보다 조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1970년대 프랑스 산업경제학자가 고안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원료로부터 완성재에 이르기까지 제조, 수송, 저장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형성의 과정을 조사하는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었다. 수순은 역동적인 생산체계를 상품사슬로 이해하고자 이 용어를 사용했다.

수순은 상품사슬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다만 분석에서 주로 국내의 스케일, 또는 보다 작은 지역규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상품사슬의 접근방법이 주로 세계적인 스케일에서 연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나아가 글로벌 상품사슬은 사슬을 주도하는 주체에 주목하는데 대해, 수순분석에서는 사슬에 있어서 물질적인 유동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수순의 분석에 있어서 무역이나 마케팅의 틀을 조작할 수 있는 공적기관만이 사슬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 생산자 주도 상품사슬과 구매자 주도 상품사슬을 이항 대립적으로 본 글로벌 상품사슬에 대해, 수순분석은 오히려 '조정' 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상품사슬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초기의 수순분석은 기업 간의 거래액 등을 지표로 한 투입산출관계에 초점을 두고 규모의 경제나 수송비 등 효율성의 추구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나아가 이것은 프랑스 식민지의 농업정책에도 응용되었으며, 그 후 1980년대에는 프랑스의 전자산업 등 공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최근의 수순분석은 보다 정치경제적인 색채를 덧붙여 그 의미에서는 가치사슬 분석과도 매우 가까운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Bernstein, 1996). 또 그 배경에는 컨벤션 이론[13]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荒木, 2007, 159).

수순은 독립된 이론으로 글로벌 상품사슬의 접근방법보다 더 일관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수순 연구에서 얻어진 통찰력은 더 풍부할 수 있다. 특히 역사적 적용범위와 깊이를 개선하고 농산물 분석의 확대와 조절을 하는 논점에서 더 좋은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수순은 상품사슬의 구조와 재구조화를 분석하는데 우수한 관습의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2) 식료체제론

미국의 농촌사회학자 Friedmann and McMichael (1989)에 의해 제창된 식료체제론은 거시적 스케일에서 식료공급체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시도한 점에서는 글로벌 상품사슬과도 공통점이 있으며,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간의 농산물 무역 패턴을 해명

하는 주제가 된다. 그래서 개별 지역성 논의의 분석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荒木, 2007, 159). 식료체제론은 농산품이 순환하는 국제적인 생산-소비관계와 이에 대한 국제기관이나 국가관여의 모습으로, 각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 간의 규범 · 규제 · 규칙(rule) · 의사결정의 절차를 말한다. 식료체제론은 1990년 이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등장한 배경에는 종래부터 행해온 국가수준의 식료 시스템의 분석을 넘어 글로벌 수준에서의 농산물 · 식료무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식민지주의,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무역을 제1차 식료체제라 하고, 1950~1970년대의 브레튼 우즈 또는 GATT 등의 체제하에서 미국의 기업농이 농산물 · 식료무역을 주도한 것이 제2차 식료체제이며, 제3차 식료체제는 1980년대 이후 미국에 덧붙여 EU나 일본의 기업농 또는 다(초)국적 기업이 무역을 재편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현재는 제2차에서 제3차로의 이행기에 해당된다. 어느 시기이든지 지금까지 각 국가 또는 수출입을 하는 두 개 국가의 틀에서만 파악해 오던 농산물 · 식료무역을 세계적 스케일에서 하나의 움직임으로서 파악하려는 것이 이 이론의 의의이다(荒井 · 箸本 編, 2007, 110).

식료체제론에 관한 연구에서 Fold and Pritchard는 대륙 간 농산물 · 식료의 이동으로 동 · 동남아시아지역 또는 오세아니아지역에서 활동한 기업농의 연구를 진행했다(荒木, 2007, 159). 또 Whatmore와 Thorne (1997), Gwynne(1999) 등의 연구는 미국의 기업농에 의한 농산물 무역이 남아메리카의 농업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혔다. 또 Barrett and Browne (1996)이나 Barrett *et al.*(1999)은 영국의 대규모 소매기업에 의한 아프리카에서의 청과물 산지의 형성과정을 상세하게 논했다. 나아가 Pitchard(2000a, 2000b)는 동남아시아 제국이 농산물 수출국으로 발전한 메커니즘을 기업농과 관련지어 밝혔다. 그리고 세계최대 식료수입국인 일본을 대상으로 한 Mansfield(2003)나 Pitchard and Curtis(2004)의 연구는 일본의 기업농이 1990년대 이후에 글로벌적인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Takayanaki(2006)는 식료제도론의 틀을 원용해 오늘날의 농산물 무역의 분석을 행했고, 荒木 등(2007)은 그 이론적 배경과 특징에 대해 논했다.

3) 식료 시스템

식료 시스템이란 식료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료의 흐름과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조직적인 틀을 말한다. 식료 시스템은 식료문제의 파악에서 농업보다는 식품산업에 더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론적 특징이 있다(황수철, 2000, 234-235).

이 용어가 지리학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80년대 이전의 생산부문에만 초점을 둔 전통적인 농업지리학 연구분야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Troughton, 1986; Bowler and Ilbery, 1987), 식료 시스템은 농업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하류부문의 가공이나 유통부문으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식료 시스템의 등장 배경에는 농업의 공업화, 자본화 등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 의미하는 생산비의 저감을 겨냥한 근대적 농업의 출현이 있었다. 또 그 결과 종래의 자급적 요소, 소규모 농업경영 등 농업의 양식이 크게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공업화 단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틀이 식료 시스템이다. 그래서 식료 시스템은 농업의 공업화에 의해 나타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를 전제로 한 시스템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다(荒木, 2007, 158-159).

식료 시스템의 연구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료공급사슬의 생태적 착근성을 측정하고 지도화한 Penker(2006)의 연구, 또 Feagan(2007)은 진부한 글로벌 식료 시스템에 대한 저항과 역 압력의 가시적 구조를 비판하면서 국지적 식료 시스템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4) 식료 네트워크론

식료 네트워크론은 식품정보의 취급이나 식품의 가

치부여 등에 주목하거나 사례 연구를 통해 식품의 가치 등 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으로, 개인이나 그 지방의 점포, 시장 또는 지역의 고유한 습관이나 기술 등을 국지적 수준에서 행위자(actor)에 주목하는 연구이다(荒木, 2007, 152, 160). 식료 네트워크론의 이론적 특징은 식료공급체계에 개재하는 행위자의 환경해석이나 판단, 행위에 착안하고 그들이 행하는 공급체계의 변동과정이나 귀결을 해석하는 점이다. 식료 네트워크론은 본래 1980년대 이후 구미의 농업 · 식료 연구에서 주류가 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제창된 것이다. 식료제도나 글로벌 상품사슬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서는 국가나 정책, 기업농 등 거시적 수준의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그로 인한 식료공급체계 재편성의 역동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식료생산의 공업화 · 글로벌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유효한 시각이지만 그 과정의 귀결을 획일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식료의 불균등한 지리적 현상에 대해 한정적인 해석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Ilbery and Kneafsey, 1999; Whatmore, 2002). 식료 네트워크 논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확실히 비판적이다. 공업화 · 글로벌화의 가정에 대해 국지적 수준에서 행위자의 주체적인 움직임을 강조함으로써 핵심적인 식료생산지역의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식료의 다양성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리고 식료 네트워크는 양질의 식품을 통한 지역진흥, 농촌개발 등의 관점을 옹호하는 측면도 있어 식품의 질이 주요어가 된다(Marsden and Arce, 1995; Murdoch *et al.*, 2000).

한편 이러한 식료 네트워크의 분석관점에 대해서 행위자의 행동을 규정한 자본축적체제나 상품관계의 존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으며, 오늘날의 글로벌 또는 복잡한 식료공급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다른 분석수준의 접근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복합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荒木 외, 2007, 49−50).

식료 네트워크 연구로서 Raynolds(2004)는 남아메리카와 무역을 하는 미국과 유럽시장을 연결짓는 남북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서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패턴과 국제무역의 통합에서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했다. 최근에는 유통단계를 단축시킨 선택적 식료 네트워크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Renting *et al.*, 2003).

이밖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경계지대에서 생산된 식료를 여러 소매업태의 식료공급사슬에 의해 밝힌 Ilbery and Maye(2006)의 연구도 있다. 또 종래의 식료공급체계에 대한 선택적인 유통으로서 또는 그것을 보완하는 유통으로서 짧은 식료공급사슬은 양질, 안전 · 안심이라는 식료의 질 문제나 주체 간, 세대간, 지역 간의 공정을 중시한 식료공급체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첫째,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간의 상품, 화폐, 정보유동을 담당하는 주체의 감소를 의미한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 단축은 각 주체가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거나 각각의 행동에 서로 강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식료생산과 로컬리티와의 관계는 특정 장소의 생태환경이나 문화 및 제도를 포함한 사회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생산기술이나 생산방식, 경영형태나 소비형태 등의 채택을 의미한다(大橋 · 永田, 2009, 91). 大橋 · 永田(2009)는 일본 이와테(岩手)현에서 기른 짧은 뿔(短角) 소고기 유통의 동태를 공급사슬의 단축과 단순화, 주체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특정한 장소와 밀접한 상호작용의 세 가지 특징을 안정적으로 존립하게 한 것은 유통업자나 생산자가 공익성이나 서로 돕기를 중시한 행동원리의 유지 · 강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짧은 식료공급사슬의 실증적인 연구로는 커피 유통의 형성요인과 공간구조를 기존의 유통과 비교 · 분석한 Whatmore and Thorne(1997)의 연구, 영국 웨일즈 지방의 지역 브랜드 소고기 생산을 성공적으로 이끈 참가 주체간의 협조관계에서 분위기나 감정을 분석한 Marsden *et al.*(2000)의 연구, 네덜란드의 제빵용 밀을 사례로 제도적 · 기술적 체제의 제약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나 상호학습을 통한 제약의 극복과정을 분석한 Wiskerke(2003)의 연구가 있다.

5. 교통사슬과 해운의 공급사슬 연구

교통은 상품사슬을 연결하는 경제의 하부구조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교통분야의 교통사슬과 해운의 공급사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교통사슬과 해운의 공급사슬 간의 차이점은 교통사슬이 사슬에서 교통양식을 중요시 하는데 대해, 해운의 공급사슬은 해운화물의 원료, 제조, 유통과정과 수송공급업자 및 해운 서비스업자 등이 취급하는 모든 과정을 다루는 점이다. 그리고 해운의 공급사슬은 항구의 배후지를 더 효과적인 요소로 연결시켜 주는 주요한 성분이다.

1) 교통사슬

교통사슬은 발송지에서 도착지로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일련의 교통수단에 의해 결합된 과정을 말한다. 그림 5는 국제무역이론과 현실의 거래에서 도출한 교역의 개념과 교통사슬 간을 비교한 것이다. 국제무역은 발송지(그림 5의 A지점)와 무역장벽의 조건에 따라 도착지(B)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주요 관심은 무역이 상품의 본질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데 관세, 비관세에서의 거래환경뿐만 아니라 협력자의 내용도 포함한다.

국제무역의 현실은 철도, 해운, 도로 교통체계와 같은 교통양식과 터미널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교통사슬을 필요로 한다. 교통사슬의 첫째 단계는 상품이 팔레트나 컨테이너로 발송지(A)에서 조립되어 집하된다. 거래되는 화물은 교통사슬에 따라 이동되고, 하나의 교통양식에서 다른 교통양식을 이용하여 터미널로 옮겨진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 수입되어 물리적인 요소와 거래 장벽의 보증인, 세관검사가 이루어진다. 이 활동은 주요 터미널, 즉 항구와 공항에서 탁월하게 이루어진다. 교통사슬의 마지막 단계는 도착지(B지점)에서 분해가 이루어진다(Rodrigue *et al.*, 2006, 149-150).

상품사슬은 채취와 변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시장까지의 재화, 부품과 원료를 수송하는 교통사슬에 의해 통합된다. 생산을 하는 자연과 소비를 하는 시장은 독특한 유동지리학(geography of flows)과 분명히 일치된다. 상품사슬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부품과 원료, 제품과 조립, 유통이다.

화물수송은 상품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송량이 증가한다. 가장 중요한 인자는 첫째, 교통효율성의 개선은 상품사슬의 영역적 범위를 확대시킨다. 둘째,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통신비의 감소는 상품사슬 이상의 더 좋은 통제수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 복합일관수송(intermodal transportation)을 위한 기술의 현저한 개선은 교통양상의 차이와 상품사슬 내에서 연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거리마찰과 생산의 공간적 분리를 감소시킨다. 이 과정은 특히 해운과 육상교통의 국제적 · 국내적 교통체계의 수용력과 효율성으로 착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품사슬지리학은 교통체계지리학을 통합시킨다. 교통과 상품사슬 간에 통합된 주된 부분 중에는 일련의 화학비료, 시설을 포함하는 농업 상품사슬, 연료수송의 에너지 상품사슬, 자동차 · 선박 · 건설재의 금속제품 상품사슬, 석유화학과 화학비료를 포함하는 화학제품 상품사슬,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목재 · 종이 상품사슬, 시멘트 · 벽돌 · 원목의 건설업, 완제품 · 반제품의 제조업과 같은 대부분의 상품사슬은 지역적 교통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교통은 상품사슬 내에서 유동량을 증가시키기를 기대한다. 상품사슬에 의한 원료, 반제품, 완제품의 사용은 수송하는 화물유형의 하나의 징조가 된다. 결론적으로 교통체계는 상품사슬의 요구에 응하도록 채택되어야 한다. 상품사슬내의 화물수송 서비스는 선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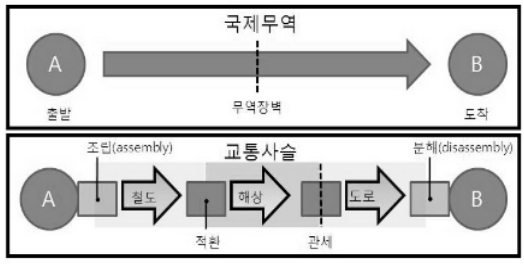

그림 5. 국제무역과 교통사슬

출처: Rodrigue *et al.*(2006, 149)

리, 지리적 적용범위, 시간제약, 위탁 크기, 화물유형, 교통양식(mode)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Rodrigue *et al.*, 2006, 154-156).

한편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의 1일 기종점의 운행을 통행사슬이라 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여객의 활동기반 자료를 이용한 통행사슬은 Strathman *et al.*(1994), Pendyaia와 Goulias(2002)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화물의 경우는 Holguin-Veras(2005)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통행사슬을 분석한 결과 통행사슬의 수가 증가할수록 목적 통행이 감소하며, 귀가의 통행비율이 낮고 출퇴근의 기능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 Holguin-Veras and Thorson(2003)는 통행사슬 모형을 공차통행에도 적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창현 등(2008)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대형 화물차의 통행사슬을 활동기반 모형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용도별 대형 화물차의 운행특성과 운행 패턴의 차이와 함께 도착지, 도착지 유형, 배열의 차이도 나타났다는 점을 밝혔다.

2) 해운의 공급사슬

원재료의 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는 몇 개의 유통기관, 즉 결절이 있는데, 이 결절들이 이어진 것을 공급사슬이라 한다. 이 용어는 현상적으로 볼 때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의 물류나 로지스틱스 관리 및 과정의 관리를 하나의 기업에서 논의하고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많은 기업이 로지스틱스 활동을 사슬로 엮어 공급사슬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해운업은 해운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그 서비스는 재화의 해상수송인데, 그것은 지점간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는 행위이다. 해운업은 물류 네트워크로 해상에서의 연결이며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급사슬이 한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공급사슬 관리란 화물유동의 하류부문이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 그리고 정보유동은 두 방향으로 서로 이루어지는 공급자,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와 고객의 체계를 말한다. Stevens(1989)에 의하면 해운에서의 공급사슬은 원료, 부품, 완성품을 공급자로부터 고객에게 계획과 조정 및 통제가 결합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조직을 통해 두 가지 뚜렷한 화물과 정보의 유동과 관련된다. 이 정의는 시스템 통합을 강조하고, 공유영역(interface)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된다. 공급사슬의 정의는 공급사슬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된 공급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고객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연구자들은 운송업자, 로지스틱 서비스 제공자도 공급사슬에 포함시키고, 정부의 규제와 세관과 관련되는 기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넓은 의미의 공급사슬은 해항(海港)이 사슬 중에 하나로 포함될 때에 유용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확대된 공급사슬의 정의는 항구 클러스터가 화물취급, 수송, 로지스틱스, 생산과 무역체계를 포함하는 클러스터로서 항구의 명명을 반영한다. 이러한 면에서 항구와 배후지와의 관계를 글로벌 상품사슬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Notteboom and Rodrigue, 2007). 또 다른 해운 연구자는 선박회사를 중심으로 한 공급사슬에 대해 정의를 제안했다. 즉, 해운 공급사슬은 가장 낮은 비용과 효율성을 획득하고 추구하기 위해 모든 사슬에 걸친 통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Carbone and Gouvernal, 2007, 12-13). 그러나 해운의 공급사슬에서 초점이 되는 기업으로서 선박회사는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급사슬의 정의로 사용하기도 한다.

항구와 터미널 관리는 공급사슬관리 업무의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항구는 글로벌 공급사슬을 나타내는 핵심 구성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항구도시와 글로벌 공급사슬에 관한 국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Wang *et al.*, 2007, 1).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해상무역을 대상으로 무역의 새로운 방향과 항만체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적 공급사슬을 언급한 Lee and Rodrigue(2006) 및 이정윤(2008)의 연구가 있다.

6. 상품 · 교통 · 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 연구와 과제

종래의 경제지리학이 산업입지 · 유통연구론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졌다면 최근에는 산업활동 네트워크론으로 그 관점이 바뀜에 따라 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이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방향의 전환은 세계화와 더불어 산업의 생산체계가 고도로 통합되고 상호의존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상품 · 교통 · 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상품사슬을 통한 지리학의 연구는 핵심과 주변에서의 농산물과 식료의 지리적 패턴에 주목하고, 이들의 수직적인 연결을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상품사슬을 주도하는 주체와 경제격차에 초점을 두고 각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품회로나 상품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는 문화적 측면이나 미시적 지역의 주체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론적 전환[14]과 국지의 중요성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양식에 의한 일련의 수송과정을 교통사슬로, 해상화물의 물적 유통과정을 해운의 공급사슬로 파악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사슬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세계 시스템론의 핵심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체현하는 시스템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슬의 변화, 즉 영역성의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종래 거시적인 정치경제학적 요소 중심의 글로벌 상품사슬에서 지리학적 관심은 주로 사슬이나 경제격차의 지리적 패턴에 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경제현상의 분석만으로 해명할 수 없어 사슬을 주도하고 통치하는 개개의 메커니즘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스케일에 주목한 사례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 각 영역에 있어서 행위자간을 유통하는 지리적 지식이나 정보를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상품과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나 이미지, 표상, 가치를 검토하고 여기에 숨어있는 기구를 밝히는 새로운 접근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미시적 스케일에서 사슬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윤리적 무역을 중시하여 살충제 사용, 노동자의 착취 등에 대한 부정적인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상품의 인증기관에 의해 정해진 '행동규범'으로 소매업자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해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도 한다. 그리고 좋은 식료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와 그것을 가급적 값싸게 사려는 구매자의 감정 사이에 유기인증이나 표시제에 대한 선택적 식료 네트워크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사슬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는 양질, 안전 · 안심이라는 질이나 주체 간, 세대간, 지역간 공정(公正)을 중시한 식료공급체계에 이용되는 짧은 식료 공급사슬과 같이 종래의 연구영역이 점점 깊고 세분화됨으로서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각 산업활동 중 어느 활동단계를 대상으로 사슬을 고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슬의 복잡한 네트워크나 복잡한 연결의 증가 및 부가적인 행위자나 국면이 증가함에 따라 어디에서 연구를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연구자의 자각이나 균형감각에 의거해야 하고, 사슬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 대 소비, 경제 대 문화, 실체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으로 양식화된 이해를 뛰어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종래의 거시 경제적 관점이 중시된 상품사슬에 문화적, 지리적 요소의 도입 등이 진척되고 있다. 그러한 문맥에서 지리학은 이들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연구의 가능성이 넓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리학이 야외조사에 의해 개별사상의 종합적인 파악을 겨냥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상을 가치나 표상이라는 문화적 측면 또는 다양한 행위자가 구성하는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포착하는 접근방법과 겹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끝으로 본래 사슬개념은 세계 시스템론을 분석도구로 접근한 분석이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명백한 이론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의 강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여러 경제활동에서 확대되고 있는 각종 사슬의 접근방법에서 밝혀진 내용을 어떻게 통일화시켜 이론화, 법칙화해 나가야 하는가도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

1) 세계 시스템은 '단일분업과 다양한 문화 시스템을 갖는 실체'로, 나아가 '공통의 정치 시스템을 갖고' 세계제국(帝國)(로마제국 등과 같이 재분배적 · 공납제적 생산양식을 특색으로 하는데 대해 세계경제는 잉여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재분배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특색으로 함)과 공통의 정치 시스템을 갖지 않는 세계경제(단일시장과 복수의 국가로부터 성립되는 시스템으로서 파악함)와는 분리되어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두 개의 기본적인 분열, 즉 부르주아대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분열과 핵심과 주변이라는 지대적(地帶的)인 분열을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杉浦 編, 2004, 108-110).

2) 식료는 곡물에 형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식량과 가공한 곡물이나 신선식품에 형질을 변화시킨 가공식품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황수철, 2000, 234).

3) 로지스틱스는 그리스어의 logistikos(to reason locally)에서 유래된 polysemic이다. 본래 19세기 군사용어로서 사용되었는데, 전시에 후방 지원활동으로,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장병, 간호사의 인력과 의약품, 식료품, 의류 등의 군수물자를 보급하고, 또 정보와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병참의 효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기술을 유통기술에 포함시켜 이것에 자원적 · 경제적 · 기업적 · 비용적 개념을 가미한 것이 비즈니스 로지스틱스이다.

4) 관점으로서의 네트워크 예로는 글로벌 상품사슬,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actor-network theory: ANT),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론이 있는데, 글로벌 상품사슬은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글로벌적인 사슬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네트워크론에 포함된다(水野, 2007, 482; Coe *et al.*, 2008, 267).

5) 종래에 '정부가 독점했던 권력의 행사를 대체하는 정책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또는 '정부와 정부외의 행위자들, 즉 시민사회, 시장(市場)이 상호의존적이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목표를 함께 추구할 때 선의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문제해결방식, 또는 조정양식'으로 정의된다. 또 시장이나 국가에도 바탕을 두지 않는 관리조정방식으로 시민사회–시장+지역적 정치운동으로 표기할 수 있다.

6)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D. Ernst의 견해로 조직적 혁신의 특별한 종류이며, 네트워크 참여자 계층(hierarchy layer)의 평행적 통합과정으로 기업과 국경을 가로지르는 가치사슬이 집중된 분산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Henderson *et al.*, 2002). 생산의 본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진다. 즉, 집중화된 글로벌 생산, 지역적 생산, 지역적 전문화, 수직적 초국적 통합이 그것이다(Rodrigue *et al.*, 2006, 153-154).

7) 최종소비품목을 들어 이 품목이 만들어지기까지 일련의 투입을 따라가는 것으로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노동계열을 인식하고 노동의 분할과 결합의 세계적인 전개와 주변으로부터 핵심으로 향하는 지리적 방향성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杉浦 編, 2004, 110).

8) 영역이 개인이나 집단, 국가에 의해 점거된 공간의 일부(area), 즉 사회적 권력에 의해 획정된 area이고, 영역성은 영역이나 그 내용에 권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사회집단에 의해 이용되는 전략을 가리킨다(森川, 2006, 146-150).

9) 본래 상품의 물신주의 또는 자본의 물신숭배라는 의미로 마르크스가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건강지향이나 지위(브랜드)지향이라는 오늘날의 선진국의 소비자 소비양식과 그것에 숨겨진 개발도상국의 생산 및 양자를 연결하는 상품사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받아드린다(荒木, 2007, 155).

10) 생산에서의 흐름이 소비에서 종식되는 것으로 특정의 방향성을 갖는 선형의 사슬이 아니고, 오히려 별도의 생산, 유통, 소비라는 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이다(荒木, 2007, 167).

11)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1990년대 초 M. Crang가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사람과 사물과의 복잡한 관계성을 문제시한 논의가 프랑스로부터 영국에 도입되었다. B. Latour나 J. Law, M. Callon에 의해 주도된 그 이론은 행위주체의 주체적 행위가 가져온 다방향적 또는 다층적인 영향력이 주시되었지만, 이 행위주체는 인간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기계 등에도 행위능력이 있고, 인간, 비인간의 구분 그 자체의 생성을 문제 삼아 양자를 합친 것을 액턴트(actant)라 부른다(森, 2009, 11-12).

12) 호혜무역이란 196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풀뿌리의 운동으로, 통상 가격보다는 훨씬 높게 설정한 가격으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구입함에 따라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자립을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상품사슬과 같이 생산부문에 편중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호혜무역 논자나 그 지지자는 개발도상국에서 약한 입장에 있는 생산자나 노동자의 권리나 경제적 처지의 향상을 중시하는 나머지 중매인이나 유통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지만, 인프라 정비가 늦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매인이나 유통업자의 역할에 상응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다(荒木, 2007, 167).

13) 컨벤션 이론이란 1980년대 프랑스에서 나타난 경제이론으로 식료연구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식료의 질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수용된 것이라는 경위가 있다(荒木, 2007, 168).

14) D. Cosgrove와 P. Jackson에 의해 '새로운 방향'으로 널리 소개된 것이며, 또한 이들은 미국 버클리학파와 대비된다. 즉 첫째, 농촌사회를 주로 연구대상으로 한 점, 둘째 단일 문화집단에 의해 형성되어 만들어진 물질문화의 가시적인 요소로 경관에 오로지 주목해 온 점, 셋째 정적(靜的)인 경관과 그에 의해 책정된 지역을 지도에 그려 파악하는 점이다. 이들은 이러한 버클리학파 연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앞에서 기술한 신문화의 개념과 지리적 표상의 위기를 명시했다. 신문화 개념은 '의미를 부여한 가치를 부여한 의미의 상징으로 변형시킨 매개물'과 문화를 '지배적인 이데오르기와 그에 대한 저항'과 그 정치적 함의에도 착안한 문화연구, 특히 문화를 기호의 시스템으로 본 R. Williams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森, 2009, 3).

참고문헌

김선근 · 정지복, 2005, 대덕밸리 IT 및 BT 클러스터의 Global Value Chain 실증분석, 조사연구 2005-0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경숙, 2005, 대구문화콘텐츠산업 가치사슬의 공간성과 경영특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원철, 2007, "한국 신발산업의 공동화 – 글로벌 상품사슬의 재편과 그 함의 –," 산업노동연구, 13(2), 1-25.

이승철, 2007, "전환경제하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 대베트남 한국섬유 · 의류산업 해외직접투자 사례연구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93-115.

이정윤, 2008, "공급사슬 개념을 활용한 물류활동의 공간적 분석," 地理學硏究, 42(3), 441-448.

이희연 · 황은정, 2008, "창조산업의 집적화와 가치사슬에 따른 분포특성 – 서울을 사례로 –," 국토연구, 58, 71-93.

임석준, 2005, "소비자 정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나이키의 글로벌 상품사슬을 중심으로 –," 韓國政治學會報, 39(2), 237-255.

張美花 · 韓柱成, 2009, "충북 음성군 접목선인장의 글로벌 상품사슬," 대한지리학회지, 44(1), 56-76.

조창현 · 김찬성 · 성홍모, 2008, "우리나라 대형 화물차의 통행사슬 분석 – 활동기반모형 적용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2), 192-202.

최정수, 2006, "경북 문화산업의 가치사슬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1), 39-60.

황수철, 2000, "일본 푸드시스템의 전개와 과제 – 식품산업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 농촌사회, 10, 233-260.

加藤和暢, 2000, "M. ポーター – 國と地域の競爭優位 –," 矢田俊文 · 松原宏 編, 現代經濟地理學 – その潮流と地域構造論 –, ミネルヴァ, 京都, 240-259.

大橋めぐみ · 永田淳嗣, 2009, "岩手縣産短角牛肉ショートフードサプライチェーンの動態の分析," 地理學評論, 82, 91-117.

森 正人, 2009, "言葉と物 – 英語圈人文地理學における文化論的轉回以後の展開 –," 人文地理, 61, 1-22.

森川 洋, 2006, "テリトリーおよびテリトリー性とアイデンティティに關する硏究," 人文地理, 58, 145-165.

杉浦芳夫 編, 2004, 空間の經濟地理, 朝倉書店, 東京.

水野眞彦, 2007, "經濟地理學における社會ネットワーク論の意義と展開方向 – 知識に關する議論を中心に –," 地理學評論, 80, 481-498.

荒木一視, 2007, "商品連鎖と地理學 – 理論的檢討 – ," 人文地理, 59, 151-171.

荒木一視 · 高橋 誠 · 後藤拓也 · 池田眞志 · 岩間信之 · 伊賀聖屋 · 立見淳哉 · 池口明子, 2007, "食料の地理學における新しい理論的潮流 – 日本に關する展望 –," *E-journal GEO,* 2, 43-59.

荒井良雄 · 箸本健二 編, 2007, 流通空間再構築, 古今書院, 東京.

Bair, J., 2005, Global capitalism and commodity chains: looking back, going forward, *Competition and Change*, 9(2), 153-180.

Bair, J., 2009, *Frontiers of Commodity Chain Research*,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Berstein, H., 1996,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ize filières, *Journal of Peasant Studies*, 23(2/3), 120-145.

Barrett, H. R. and Browne, A. W., 1996, Export horticultural production in Sub-Saharan Africa: the incorporation of the Gambia, *Geography*,

81, 47-56.

Barrett, H. R., Ilbery, B. W., Browne, A. W., and Binns, T., 1999, Globalization and the changing networks of food supply: the importation of fresh horticultural produce from Kenya into the UK, *Transaction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4, 159-174.

Bowler, I. and Ilbery, B., 1987, Redefining agricultural geography, *Area*, 19, 327-332.

Carbone, V. and Gouvernal, E., 2007, Supply chain and supply chain management: appropriate concepts for maritime studies, in Wang, J., Olivier, D., Notteboom, T., and Slack, B.(eds.), *Ports, Cities, and Global Supply Chains,* Ashgate, Hampshire.

Castree, N., 2001, Commodity fetishism, geographical imagination and imaginative geograph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9), 1519-1525.

Coe, N. M., Dicken, P., and Hess, M., 2008, Introduction: global production networks-debates and challeng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 267-269.

Coe, N. M., Kelly, P. F., and Yeung, H. W., 2007, *Economic Geograph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ing, Bruce Springsteen.

Collins, J. L., 2000, Tracing Social relations in commodity chain: the case of grapes in Brazil, in Haugerud, A., Stone, M. P., and Little, P. D.(eds.), *Commodity and Globalizatio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Lanham, 97-112.

Crewe, L., 2004, Unravelling fashion's commodity chains, in Hughes, A. and Reimer, S.(eds.),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Routledge, London, 195-214.

Feagan, R., 2007, The place of food: Mapping out the 'local' in local food system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 23-42.

Friedmann, H. and McMichael, P., 1989, Agriculture and the state system: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al agriculture, 1870 to the present, *Sociologia and Ruralis*, 29, 93-117.

Gereffi, G., 1994, The organization of buyer-driven global commodity chains: how US retailer shape oversea production networks, in Gereffi, G. and Korzeniewicz, M.(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Greenwood Press, Westport, 95-122.

Gereffi, G. and Korzeniewicz, M.(eds.), 1994,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Greenwood Press, Westport.

Gereffi, G., 1999,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upgrading in the apparel commodity chai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8, 37-70.

Gereffi, G., Humphrey, J., and Sturgeon, T., 2005,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 78-104.

Goldfrank, W., 1994, Fresh demand: The consumption of Chilean produce in the United States, in Gereffi, G. and Korzeniewicz, M.(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Greenwood Press*, Westport, 267-279.

Guthman, J., 2004, The 'organic commodity' and other anomalies in the politics of consumption, in Hughes, A. and Reimer, S.(eds.),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Routledge, London, 233-249.

Gwynne, R. N., 1999, Globalization, commodity chains and fruit exporting regions in Chile,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0, 211-255.

Henderson, J., Dicken, P., Hess, M., Coe, N., and Yeung, H. W.-C., 2002,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 436-464.

Holguin-Veras, J. G., 2005, Observed trip chain behavior of commercial vehicl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906, 74-80.

Holguin-Veras, J. G. and Thorson, E., 2003, Modeling commercial vehicle empty trips with a first order trip chain model, *Transportation Research B*, 37, 129-148.

Hopkins, T. K. and Wallerstein, I., 1986, Commodity

chains in the world-economy prior to 1800, *Review*, 10, 157-170.

Hughes, A., 2000, Retailers, knowledge and changing commodity network: the case of the cut flower trade, *Geoforum*, 31, 175-190.

Hughes, A., 2001, Global commodity networks, ethical trade and governmentality: organizing business responsibility in the Kenyan cut flower industry, *Transactions of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S.*, 26, 390-406.

Hughes, A., 2004, Accounting for ethical trade: global commodity networks, virtualism and the audit economy, in Hughes, A. and Reimer, S.(eds.),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Routledge, London, 215-232.

Hughes, A. and Reimer, S.(eds.), 2004,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Routledge, London.

Hughes, A., 2006, Learning to trade ethically: Knowledgeable capitalism, retailers and contested commodity chains, *Geoforum*, 37, 1008-1020.

Ilbery, B. and Kneafsey, M., 1999, Niche markets and regional speciality food products in Europe: towards a research agenda, *Environment and Planning A*, 31, 2307-2322.

Ilbery, B. and Maye, D., 2006, Retailing local food in the Scottish-English borders: a supply chain perspective, *Geoforum*, 37, 352-367.

Jackson, P., 1999, Commercial cultures: the traffic in things', *Transactions of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S.*, 24, 95-108.

Jackson, P., 2002, Commercial cultures: transcending the cultural and the economic,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 3-18.

Jackson, P. and Taylor, J., 1996, Geography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advertising,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 356-371.

Kim, H. K. and Lee, S. H., 1996, Commodity chains and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in Gereffi, G. and Korzeniewicz, M.(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Greenwood Press, Westport, 291-296.

Korzeniewicz, M., 1994, Commodity chains and marketing strategies: Nike and the global athletic footwear industry, in Gereffi, G. and Korzeniewicz, M.(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Greenwood Press, Westport, 247-279.

Lee, N. and Cason, J., 1996, Automobile commodity chains in the NICs: a comparison of South Korea, Mexico, and Brazil, in Gereffi, G. and Korzeniewicz, M.(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Greenwood Press, Westport, 223-243.

Lee, J.-Y. and Rodrigue, J.-P., 2006, Trade reorientation and its effects on regional port systems: the Korea-China link along the Yellow Sea rim, *Growth and Change*, 37, 597-619.

Leslie, D. and Reimer, S., 1999, Spatializing commodity chai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 401-420.

Mansfield, B., 2003, Spatializing globalization: a "geography of quality" in the seafood industry, *Economic Geography*, 79, 1-16.

Marsden, T. and Arce, A., 1995, Constructing quality: emerging food networks in the rural transi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27, 1261-1279.

Marsden, T., Banks, J., and Bristow, G., 2000, Food supply chain approaches: exploring their role in rural development, *Sociologia Ruralis*, 40, 424-438.

Mather, C. and Rowcroft, P., 2004, Citrus, apartheid and struggle to (re)present Outspan oranges, in Hughes, A. and Reimer, S.(eds.),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Routledge, London, 156-172.

Morris, C. and Young, C., 2004, New geographies of agro-food chains: an analysis of UK quality assurance schemes, in Hughes, A. and Reimer, S.(eds.),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Routledge, London, 83-101.

Murdoch, J., Marsden, T., and Bank, J., 2000, Quality, nature, and embeddedness: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context of the food sector,

Economic Geography, 76, 107-124.

Murray, W. E., 2006, *Geographies of Globalization*, Routledge, New York.

Nadvi, K., 2008, Global standards, global governance and the organization of global value chain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 323-343.

Notteboom, T. and Rodrigue, J.-P., 2007, Re-assessing port-hinterland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global commodity chains, in Wang, J., Olivier, D., Notteboom, T., and Slack, B.(eds.), *Ports, Cities, and Global: Supply Chains*, Ashgate, Hampshire, 51-66.

Pendyaia, R. M. and Goulias, K. G., 2002, Time use and activity perspectives in travel behavior research, *Transportation*, 29, 1-4.

Penker, M., 2006, Mapping and measuring the ecological embeddedness of food supply chains, *Geoforum*, 37, 368-379.

Pitchard, B., 2000a, Geographies of the firm and transnational agro-food corporations in East Asi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1, 246-262.

Pitchard, B., 2000b, The transnational corporate networks of breakfast cereals in As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32, 789-804.

Pitchard, B. and Curtis, R., 2004,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agro-food liberalization in East Asia: lesson from the restructuring of Japanese dairy provisioning, *Economic Geography*, 80, 173-190.

Polier, N., 2000, Commoditization, cash, and kinship in postcolonial Papua New Guinea, in Haugerud, A., Stone, M.P., and Little, P.D., *Commodity and Globalizatio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Lanham, 197-218.

Porter, M. E., 1985,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Free Press, New York.

Raikes, P., Jensen, M. F., and Ponte, S., 2000, Global commodity chain analysis and the French filière approach: comparison and critique, *Economy and Society*, 29, 390-417.

Raynolds, L. T., 1994, Institutionalizing flexibi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Fordist and Post-Fordist models of third world agro-export production, in Gereffi, G. and Korzeniewicz, M.(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Greenwood Press, Westport, 143-161.

Raynolds, L. T., 2004, The globalization of organic agro-food networks, *World Deveoplment*, 32, 725-743.

Reimer, S. and Leslie, D., 2004, Knowledge, ethics and power in the home furnishings commodity chains, in Hughes, A. and Reimer, S.(eds.),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Routledge, London, 250-226.

Renting, H., Marsden, T., and Banks, J., 2003, Understanding alternative food networks: exploring the role of short food supply chains in rural development, *Environment of Planning A*, 35, 393-411.

Rodrigue, J.-P., Comtois, C., and Slack, B., 2006, *The Geography of Transport Systems*, Routledge, New York.

Smith, A., Rainnie, A., Dunford, M., Hardy, J., Hudson, R., and Sadler, D., 2002, Networks of value, commodities and regions: reworking divisions of labour in macro-regional econom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 41-63.

Stanford, L., 2000, The globalization of agricultural commodity systems: examining peasant resistance to international agribusiness, in Haugerud, A., Stone, M. P., and Little, P. D., *Commodity and Globalizatio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Lanham, 79-96.

Stevens, G. C., 1989, Integrating the supply chain,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and Materials Management*, 19(8), 3-8.

Strathman, J., Dueker, K., and Davis, J., 1994, Effects of household structure and selected travel characteristics on trip chaining, *Transportation*, 21, 23-45.

Stringer, C. and Le Heron, R.(eds.), 2008, *Agri-Food*

Commodity Chains and Globalising Networks, Ashgate, Aldershot.

Sturgeon, T., Biesebroeck, J. V., and Gereffi, G., 2008, Value chains, networks and clusters: reframing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 297-321.

Talbot, J. M., 2002, Tropical commodity chains, forward integration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inequality: coffee, cocoa and te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 701-734.

Thrift, N. and Olds, K., 1996, Refiguring the economic in economic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 311-337.

Takayanaki, N., 2006, Global flows of fruit and vegetables in the third food regime, *Journal of Rural Community Studies*, 102, 25-41.

Troughton, M. J., 1986, Farming systems in the modern world, in Pacione, M.(ed.), *Progress in Agricultural Geography*, Croom Helm, London, 93-123.

Wallerstein, I.,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Wang, J., Olivier, D., Notteboom, T., and Slack, B.(eds.), 2007, *Ports, Cities, and Global Supply Chains*, Ashgate, Hampshire.

Whatmore, S., 2002, From farming to agribusiness: global agri-food networks, in Johnston, R. J., Taylor, J., and Watts, M. J.(eds.), *Geographies of Global Change*, Blackwell, Oxford, 57-67.

Whatmore, S. and Thorne, L., 1997, Nourishing networks: alternative geographies of food, in Goodman, D. and Watts, M. J.(eds.), *Globalizing Food: Agrarian Questions and Global Restructuring*, Routledge, London, 287-304.

Wilson, S. and Zambrano, M., 1994, Cocaine, commodity chains, and drug politics: a transnational approach, in Gereffi, G. and Korzeniewicz, M.(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Greenwood Press, Westport, 297-315.

Wiskerke, J., 2003, On promising niches and constraining sociotechnical regimes: the case of Dutch wheat and bread, *Environment and Planning A*, 35, 429-448.

Xin, T., 2005, Electronic waste, global value chains and environmental policy response in China, in Heron, R. L. and Harrington, J. W.(eds.), *New Economic Spaces: New Economic Geographies, Ashgate*, Berlington, 136-145.

교신: 韓柱成(한주성),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개신동)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jshan@chungbuk.ac.kr, 전화: 043-261-2697, 팩스: 043-276-2693)

Correspondence: Ju-Seong Ha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10 Seongbong-no (Gaesin-dong), Heungdeok-gu, Cheongju city, 361-763, Korea(e-mail: jshan@chungbuk.ac.kr, phone: +82+43-261-2697, fax: +82+43-276-2693)

최초투고일 09. 10. 12
수정일 09. 11. 11
최종접수일 09. 12. 02